

‘재미’와 ‘감동’으로 대중의 감수성 사로잡다

대중들이 대중문학을 즐겨 읽는 이유...

특권의식에 젖은 순수문학의 입지 갈수록 좁아져

김성곤 | 서울대 영문과 교수 · 문학평론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시대가 시작되면서 문학은 상아탑과 은둔지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과 거리로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문학의 부상은 필연이었고, 대중문학과 순수문학의 경계선도 급격히 허물어졌다. 사람들은 현실과 괴리된 순수문학보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대중문학을 읽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대중문학도 이제 곧 불후의 고전으로 문학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때 순수문학을 모르면 부끄러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조차 조이스와 포크너, 지드와 프루스트, 또는 헤세와 카프카를 읽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만 해도 “카프카의 〈변신〉을 읽었나요?”라고 누가 물어왔을 때, “아니오, 아직은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불과 30여년이 지난 지금, 인문대학의 강의실을 제외하고는 조이스의 《율리시스》나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대신 지금은 “〈해리 포터〉 시리즈를 읽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오, 아직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시대가 됐다. 순수문학은 이제 대학원 어문학과와 전공과목으로 축소됐고, 학부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신 대중문학이 당당하게 대학의 교과과정과 교양인들의 독서 리스트에 포함됐다.

허물어지는 대중문학과 순수문학의 경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순수문학을 외면하고 대중문학을 읽게 됐는가? 우선 순수문학이 주지 못하는 ‘재미와 감동’을 대중문학이 주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사실 영문학 전공자들을 제외하면, 포크너의 《소음과 분노》나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 재미와 감동을 느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전공자들도 어려워 주석서를 봐야만 하는 것, 또는 해설서가 원작보다도 더 두꺼운 것이 문학이라면 일반대중들의 외면은 필연적이다.

물론 20세기 초, 모더니즘과 신비평의 신봉자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난해성이야말로 바로 예술의 본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예술은 일상과는 다른 저 높은 영역에 존재하

는 지고한 것이며, 세속적인 삶이나 현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그래서 기계문명과 상업주의의 홍수 속에서 소수 엘리트들의 순수한 휴머니티를 지탱해주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던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술은 상아탑과 은둔지에서 나와, 일상의 삶과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일상과 삶도 곧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인간과 기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휴먼테크’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문학과 예술의 세속성과 정치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문학은 이제 심미적 추구에서 벗어나, 인종·계급·젠더·정체성·이데올로기·헤게모니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 텍스트가 됐으며, 그런 상황에서 순수문학의 오염과 비순수문학의 부상은 필연적이었다.

거기에 텔레비전과 비디오와 컴퓨터의 보급은 대중문화를 주류 문화의 자리에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과 인터넷은 특권층의 정보독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정보의 확산과 공유는 전지구적 현상이 됐다. 문학에 위기의식을 불러온 영화와 텔레비전도 문학작품의 영상화를 통해 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문학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그런 와중에서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사이의 구분 또한 급속도로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한때, 모더니즘을 지지했던 정전주의자들은 순수문학에 비해 대중문학은 상상력과 통일성, 그리고 상징성과 주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모호성과 다양성이 찬양받는 시대, 그래서 문학작품의 통일성이 오히려 결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현대의 문화연구자들은 비록 종류는 다를지라도 대중

문학에도 상상력과 상징성과 주제의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해리 포터> 시리즈에 상상력이나 상징성이나 주제의식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만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J.K. 롤링은 뛰어난 상상력 하나로 전 세계의 독자들을 사로잡은 작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사이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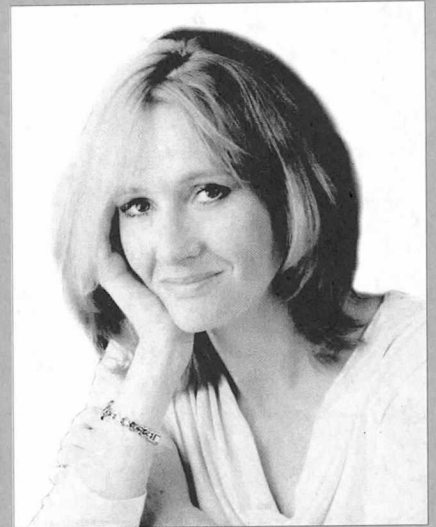
문화 귀족주의의 종언과 대중문화의 대두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는 지금 급속도로 허물어지고 있다. 매체의 다변화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문화 귀족주의의 종언과 대중문화의 대두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고급예술은 이제 더욱 더 고립돼 박물관의 유물로 남겨져나, 아니면 대중예술과 제휴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거나 가운데 택일해야 할 기로에 놓이게 됐다. 대세는 물론 후자 쪽이다. 미국의 대중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막강한 호소력을 갖고 확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대중과 대중문화가 주종을 이루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근간을 이뤄온 것은 언제나 양반과 고급문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편견은 유별난 편이다. 더욱이 대중문화와 통속문화를 구분하지 않고 고급문화가 아닌 것은 모두 대중문화라고 부르는 우리의 경우, 대중문화는 곧 저질문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범람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제휴도 우리는 대중문화의 수준향상이 아니라, 고급문화의 질적 저하로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문학의 경우에도 질 낮은 통속문학이 대중문학의 탈을 쓰고 끼어 드는 것은 철저히 배제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대학이 외면하는 대중문학이라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될 것이고 오래 기억될 것이다. <드라큘라>의 작가인 브람 스토커를 연구하는 '브람 스토커 학회'의 회장은 국내에서 방영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드라큘라〉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은 막강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영향력은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조이스만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메어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나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비평가 레슬리 피들러는 "순수문학주의자들도 밤에는 커튼을 닫아놓고 몰래 대중문학을 읽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굳이 숨어서 대중문학을 읽을 필요가 없게 됐다. 대중문학이 주류를 이루는 대중문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순수문학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가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발명했으며, 이후 헤밍웨이나 포크너나 피츠제럴드 같은 소설가들도 <라이프>나 <에스콰이어> 같은 대중잡지에 소설을 발표했고, 피들러같은 비평가는 심지어 <플레이보이>에 문학평론



현대의 문학연구자들은 대중문화에도 상징성과 주제의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순수문학이 현실에 인주하는 수구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많은 독자들은 대중문학이 펼쳐놓은 환상적인 공간에 몰려들었다. 사진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문학수첩 사진제공).

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에도 환상소설과 SF소설의 대가들은 모두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교수들이었다. 만일 대중소설이 폴리처상 수상작가인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나 J.K.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나, 또는 <드라큘라>나 <프랑켄슈타인>처럼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작품들을 의미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중문학을 읽을 것이고, 대중문학 역시 불후의 고전으로 남게 될 것이다.

대중적 호소력 잃은 순수문학

사람들은 왜 대중문학을 읽는가? 현실과 괴리되고 특권의식에 젖은 우리의 순수문학이 이제 더 이상 대중적 호소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대담론에 사로잡혀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1980년대/남성작가들), 사소한 것에 집착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1990년대/여성작가들) 우리 문학이 점점 더 그 힘과 매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대중적 호소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수주의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작품이 대중의 사랑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예술가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또 독자가 없고 작가들끼리만 돌려보는 문학이라면 그게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는가?

순수문학이 변화를 거부하고 경계선을 주장하며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중소설을 읽을 것이다.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예술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대중문학을 비난만 하고 있는 한,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잠자리에서 여전히 <해리 포터> 시리즈를 읽을 것이다. 21세기는 대중문화/대중문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순수문학의 생존과 번영은 오직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기법,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의 개발에 달려있을 뿐이다. ●